



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희



구례 박진호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여수 김석철

보성군, '농산물 가공

창업 기초반 교육 실시

내달 17일까지 이론과 현장학습 병행



보성군은 19일부터 다음달 17일 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30명을 대상으로 농산물 가공창업 기초반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 및 창업 소득화 등기유발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스마트경영연구원에 위탁하여 총 10회에 걸쳐 국내 농식품 사업현황, 농업인 가공창업 성공사례, HACCP, 식품위생법 등 가공창업 기본이론이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또한, 김치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만드는 체험이 가능한 '광주김치 티문', 한과 제조업체 '담양 안복자 한과', 전통 장류업체 '순창 장본가' 등 지역 특산품 가공업체 현장 학습도 실시된다.

'기초반' 교육 수료자는 오는 10월 운영 예정인 '심화반' 교육에 편성되어 농산물 가공창업을 위한 전문인력으로 양성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농업인에게 전반적인 가공 관련 기초지식을 제공하여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농업 경영인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장성군, '브런치&디저트 1급 지도자' 양성교육 운영

장성군이 향토음식을 활용한 브런치&디저트 만들기 교육을 운영한다.

장성군농업기술센터는 5월 3일부터 농촌생활교육관에서 휴게음식점, 식생활관련 업체 종사자,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브런치&디저트 1급 지도자 양성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이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보전가치가 있는 장성의 향토자원과 맛 자원을 발굴해 현재의 트렌드에 맞게 재구성하고 장성 먹거리의 품질과 맛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횡성강 따라 발달된 폐기탕 등

장성의 향토음식과 타지역 팔도향토음식, 전통 디저트에 관한 이론 교육이 진행되고,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향토자원을 활용한 황금찰보리빵, 화과자, 사과모찌, 흥시양갱, 대봉감수무지, 사과밀크잼, 단감파비초콜렛 등의 제조 방법과 이를 각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습도 체계적으로 다뤄진다.

교육은 총 44시간 과정으로, 5월 3일부터 7월 19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진행된다.

교육 신청은 4월 24일부터 27일 까지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고, 선착순으로 30명을 선발한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농촌자원담당(☎ 061-390-8436)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례군, 제37회 군민의 날 행사 개최



지난 18일 구례공설운동장에서 제37회 군민의 날 행사가 열렸다. 군민의 화합을 다지는 입장식에는 각 읍·면 선수단과 주민들이 각 지역의 특색을 담은 퍼포먼스와 플래카드를 선보이며 입장하고 있다.

오후에는 온 군민이 참여한 축구,

축구, 씨름 등 7개 종목의 체육행사가 열렸다.

한편,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화엄사 시설지구 등 구례군 일원에서 제74회 지리산남악제 및 제37회 군민의 날 행사가 천년의 역사 속으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구례=박진호 기자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7전남도청 옆)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www.jepa.kr

영광군, 쓰레기불법투기 감시 CCTV 설치 운영

영광군에서는 그동안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코자 주민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쳐 '쾌적하고 깨끗한 영광', 풀드는데 많은 노력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늘어나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뿐만 아니라 관내 22개소에 고정식 CCTV 22대와 이동식 CCTV 3대를 설치해 이달 말까지 시범운영 후 다음 달부터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및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야간이나 주말 등 취약 시간을 틈타 수시로 버려지는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생활불편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공무원과 환경미화요원 등 인력만으로는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야간의 경우 계시판 점등과 시

각 및 청각적 계도 효과로 불법투기 근절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식 CCTV는 일정 기간 운영하다 다른 곳으로 언제든지 이동 설치가 가능해 주민들의 무단투기행위 경각심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쾌적하고 깨끗한 영광 만들기'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불법투기 진압 단속반 2개조 11명과, 읍면 소속 단속 요원 38명을 편성하고 무단투기 취약지에 대해 집중 계도와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를 통한 종량제 정착을 위한 홍보도 병행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고흥군, 현장 밀착형 귀농 프로그램 큰 호응

고흥군이 현장 밀착형 귀농 프로그램으로 귀농 희망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10년 이후 매년 증가추세인 고흥군 귀농인구는 매년 300여 명이 귀농하여 2018년 현재 2,300여 명이 귀농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중 410명이 영농창업 자금 및 주택 수리비를 지원받아 정착으로써 인구늘리기와 농촌 활성화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금년에도 귀농인 130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영농교육을 5월과 10월 중 2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120명)을 초청하여 농업현장 견학 및 고흥군 홍보를 위한 도시민 초청 농촌문화체험 페스티벌 행사를 3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영농창업 자금 연중 수시 지원, 품목별 신도농기와 멘토·멘티제 확대 운영, 농업에 대한 이해와 지식 습득할 수 있는 현장체험, 실습 교육 및 귀농인 영농기초 교육 등을 340명 이상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고흥군은 귀농 희망자가 주

요 분포한 수도권 현지로 찾아가는 귀농 상담을 실시하여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고흥 현지에서는 귀농인의 농촌 정착을 돋는 영농정책 도우미제 및 품목별 영농배움터 소규모 학교를 시범 운영하여 실질적인 삶의 도움을 주는 밀착형 프로그램을 실시해 나가고 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함평군, '숲속의 전남 만들기' 나무심기 행사 가져

50여 명 참여 산수유나무·산철쭉 식재



함평군은 지난 17일 서당매미을 경관 숲 조성사업장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숲속의 전남 만들기 주민참여 숲 조성은 민간 주도로 나무를 식재하고 사후관리를 추진함으로써 생활

권 주변의 숲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공모를 통하여 사업이 결정됐다.

숲속의 전남 만들기 주민 참여 단체인 함평로터리클럽 회원과 군민 5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산수유나무 5주, 산철쭉 1,000주를 식재했다.

군은 앞으로 함평군 학교면 서당 매 마을 앞 공한지에 대왕참나무와 팽나무 등 교목류와 영산홍과 흥금사철 등 관목류 3,345주를 식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함평로터리클럽은 함평군과 숲 돌보미 협약을 체결하고, 제초작업, 비료주기, 물주기 등 숲 돌보미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함평=김광춘 기자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부스 운영

취약근로자 권리보호·지원

- 근로조건 명약사기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전경 청탁 및 지원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당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민사권리방지 안내